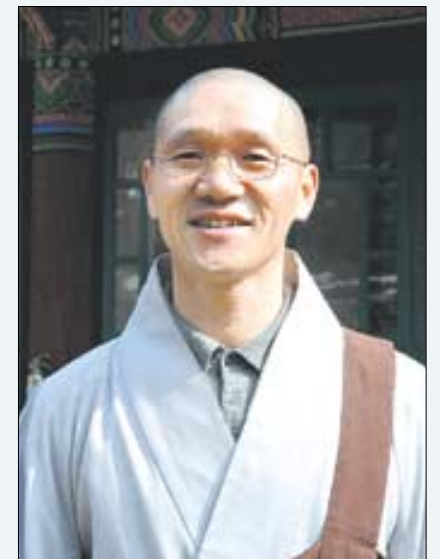




중생들의 고통을 모두 구제하겠다는 지장보살님의 원력이 오롯하게 되살아나는 영명사의 삼천(三千)지장보살상. 영명사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지장기도 도량이며 수행처로서 전국 불자들의 참배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인터뷰

영명사 주지 지범 스님



“갈등의 시절에는 지장신앙이 답입니다”

“지장 신앙은 불교의 근본 사상이라 할 수 있는 인연법과 윤회를 바탕으로 참된 행위와 실천을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지장 기도는 중생의 아픔을 함께 하고 중생의 처지에서 그 고통을 어루만져 주는 지장보살의 원력을 이 시대에 되살려 자신을 새롭게 돌아보고 바른 수행을 하도록 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영명사 주지 지범 스님은 요즘과 같이 갈등이 많고 생존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이 사회에서는 지장 신앙이 꼭 필요하고 그 중요성도 한층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지은 행위에 의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므로 지금의 수행과 정진이 가장 중요하다”는 스님은 그래서 불자들 스스로가 지혜를 닦고 깨닫는 참선 공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참선 지도와 요가 지도에 헌신하고 있다.

영명사는 삼천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있고 도량이 많아 신심과 환희심이 절로 난다는 불자들이 많다고 전하는 스님은 “지장 기도도량하면 곧바로 영명사가 떠오를 정도로 전국 제일의 지장 기도도량으로 발전시킬 생각”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달 품은 도량에 지장보살 원력 가득

지장기도도량 구미 영명사

“지옥과 삼악도의 죄로 고통받는 중생을 맹세코 제도하여 지옥 축생 아귀 등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와 같이 죄의 압박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불한 뒤에야 정각을 이루겠습니다.”

경북 구미시 선산을 월류산(月流山) 자락에 위치한 구미 영명사(永明寺). 노천에 모셔진 삼천 지장보살상(地藏菩薩像) 앞에 서면, 지장보살의 대자대비한 원력이 귓전에 맴도는 듯 하다.

삼천(三千)의 지장보살이 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하겠다는 원을 발하고 있는 영명사에는 스스로의 성불을 포기하고 중생제도를 서원한 지장보살의 지극한 자비심과 원력이 이 시대에 오롯하게 되살아나고 있다.

통도사 구미 포교당 영명사는 지장보살님을 본존으로 모신 지장기도 도량으로 지장의 본원을 믿고 스스로 지장이 되어 보살행을 행하려는 불자들

의 기도처로 각광받고 있다.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의 절박한 서원이 시공을 초월해 불자들의 마음에 다시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영명사는 1989년 기림사에서 6년동안의 묵연정진을 마친 주광 스님이 폐사지에 터를 잡고 10여 년 동안 불사를 진행한 결과 지금의 면모를 갖추었다.

묵연 정진 동안 주광스님은 지장보살님에 대한 신앙세계를 깊이 체험하였고, 지장도량 건립을 서원하게 되었다. 그 원력에 의해 옥외에 삼천(三千) 지장보살상을 조성했고 지장 보궁에는 육자장, 지장왕 보살상을 봉안하며 근대 지장 신앙의 필요성을 제창하기 시작했다.

근대에 들어 지장신앙의 활성화는 부르짖은 시조 도량이라는 자부심으로 월류산의 심원사와 선운사 도솔암

에 버금가는 지장 도량을 발원하기에 이르렀다. 남다른 원력으로 지장 신앙을 제창해오던 주광 스님의 입적으로 한때 어려움을 겪기도 한 영명사는, 선방에서 오랫동안 수행정진해 온 지범 스님이 최근 주지로 부임하면서 재도약의 시기를 맞았다.

영명사를 품은 월류산은 깨달음으로 상징되는 ‘달’을 품었다는 뜻으로 불법의 깊은 가르침을 품은 듯 안온하면서도 맑은 기운이 흐른다. 월류산의 기운이 닿아 있는 산자락에 위치한 영명사는 산사(山寺)의 고요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선산 IC에서 6km 지점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3시간 거리에 있는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마산, 울산, 포항 등지에서 불자들이 기도처로 삼기에 불편함이 없어 전국 불자들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다.

8년 전부터 지장제일마다 영명사를 찾아 기도

정진하고 있다는 곽정순(73, 순조68, 공자64) 세 자매 보살들은 “대구에서 이곳까지 일주러 오고 있다. 다녀가면 또 금방 오고싶을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도량”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매주 일요일마다 삼천지장보살전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현미옥 불자는 “지장전에서 기도를 할 때마다 연꽃 모양의 불빛이 나타나 빨갱게 사방으로 번진다 사라지는 묘한 현상을 경험한다”며 “지장보살님의 원력과 나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로 모여져 기도 후 마음과 몸이 너무 맑아진다”고 기도 경험을 털어냈다.

맹목적으로 지장의 본원력에 의지하는 타락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와 선정을 닦아 해탈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들고 있어 영명사는 기도처로서 뿐 아니라 수행처로도 손색이 없다. 신도 포교와

“다녀가면 마음 편안” 전국불자들 참배 매일기도 생활화...매월 1·3주 토요일 토요선방 “전국 제일의 지장기도 도량 서원”

사회복지사업에 남다른 원력을 세웠던 창건주 주광 스님의 뜻을 더 한층 발전시키고 있는 지범 스님은 매일 첫째 셋째 토요일마다 토요선방을 개설, 불자들의 수행을 이끌고 있기도 하다.

또한 매월 지장제일 정기법회 봉행과 매일 삼천기도를 생활화하고 있으며 백일간의 백중기도와 21일간의 수자령 기도 등은 영가 천도와 조상 천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기도 하다.

전국 제일의 지장 기도도량을 서원하는 구미 영명사는 적멸보궁 통도사 말사답게 지장보궁(地藏寶宮)을 향한 서원을 키워가고 있다.

4월 6일 회향 예정인 산신각 불사를 비롯 16나한전 신축과 종각 불사를 계획하는 등 전국 제일의 지장기도 도량 조성에 영명사 사부대중의 힘이 결집되고 있다.



지장전에서 통유리를 통해 삼천불을 보며 기도할 수 있다.



삼천지장보살상 앞에서 기도하는 불자들.



안온하면서도 맑은 기운이 흐르는 월류산 영명사 전경.

영명사 아동복지시설 ‘해뜨는 집’ 13명의 형제들 “언제나 밝은 마음”

영명사에는 아동복지시설인 ‘해뜨는 집’이 있다. 이름처럼 낮엔 해가 환히 비추고 밤엔 달빛이 스미는 그 집엔 남자아이 13명이 ‘엄마’ 능인행(52) 보살과 살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이들 모두는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다.

영명사가 결혼 가정의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한 것은 85년부터다. 사회복지에 남다른 원력을 세웠던 창건주 주광 스님의 뜻에 따른 것. 97년에 ‘해뜨는 집’을 준공하면서 본격화된 사회복지 실천은 현 주지 지범 스님이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다.

중생의 고통을 먼저 보듬는 보살행이 강조되는 지장기도도량으로서 사회복지를 당면한 일로 여기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언제든 찾아 올 수 있는 집과 고통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대학 교육이나 사회 생활 뒷바라지까지 형편이 닿는 대로 해줄 겁니다.”

그만큼 지범 스님은 ‘해뜨는 집’ 가족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

아이들과의 인연을 지장보살님이 맺어줬다고 믿고 있는 능인행 보살은 자상하고 세심한 손길로 13명 아이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았다.



사물놀이를 배우고 있는 영명사 ‘해뜨는 집’의 아이들.

예일대 입학은 목표로 책에 파묻혀 사는 성민이와 막내 민수, 직업훈련소에서 자동차정비를 배우는 유백이까지 모든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대견하다.

주지 스님은 뼈뺀 사찰의 살림살이에도, 학습지, 교재, 학용품 등 ‘해뜨는 집’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가장 먼저 해결해주는 배려를 하고 있다.

영명사 홈페이지 youngmyungsa.or.kr

산신각 건립 회향법회 4월6일 현문스님 증명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일시: 4월 6일(음 2월 17일) 화, 오전 10시 증명 법사: 통도사 선원장 천진 스님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영명사 가는 길 * 선산 터미널에서 영명사까지 택시 이용 약 5km * 구미역 앞 202번 노선 버스 선산터미널 하차 * 대구 북부터미널 선산행 정기버스 매 10분 간격 선산 터미널 하차 * 고속도로 경부선 구미 김천 중간지점 삼주방향 중부내륙 고속도로 선산 IC에서 김천방향 약 6km 정기법회(지장제일) 버스운행 * 대구시민회관 오전 8:00 출발 / 울산태화호 뱃길 7:30 출발 * 선산버스터미널에서 사찰봉고 운행 * 부산 교대앞 새벽 6:30 출발 / 운전장·양산 통도사 경유 * 서울 버스 운행도 준비 중

경북 구미시 선산읍 내고1리 715번지 전화 (054) 482-1390 팩스 (054) 482-3492